

# 아동양육시설 보육사가 경험한 통합보육 다면성

윤성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Multifaceted Aspect of Inclusive Care Experienced by Residential Child Care Staffs

Sung-hee Yun

Kyonggi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보육사가 경험한 통합보육을 통해 통합보육의 다면성과 성공적 통합보육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경험한 10명의 보육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에 따라 전사 자료를 분석했다. 보육사들은 통합보육 수행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통합보육 적응과정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즉각적 소통의 창구 마련, 장애아동 케어와 관련한 보육사 교육지원 및 특수교사 파견 등을 원하고 있으며, 3교대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 다면성에 따른 지원방안으로서 보육사의 처우와 급여 문제,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양육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 하는데 있어 향후 연구 방향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통합보육의 다면성, 질적 사례연구

Abstract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residential child care staffs, this study explored the multifaceted aspects of inclusive care and discussed the direction of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implementation in residential child care faciliti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are staffs experienced inclusive education at residential child care facilities, and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sed to analyze transcribing data. Care staffs were reluctant to carry out inclusive education. They felt guilty due to not enough care either for disabled or non-disabled children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inclusive education. They were calling for immediate communication channels to get the necessary support on time. They also recognized needs for professional education for care staffs regarding care of disabled children, and to dispatch special education teachers. It was found that all participants in the study disagreed on three-shift policy. Lastly, the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multifaceted aspects of inclusive care in residential child care fac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residential child care facilities, residential child care staffs, inclusive care, multifaceted aspect,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Corresponding Author : Sung-hee Yun(wiky5522@naver.com)

Received January 14,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1,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 1. 서론

영유아·아동기에는 신체 및 심리정서 발달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경험과 환경은 이후의 심리적 발달뿐 아니라 사고력과 인지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영유아·아동기에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이다[1].

이같은 과업은 시설보호아동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시설보호아동은 이 중요한 시기에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부모가 아닌 보육사와 함께 생활하며 성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사회적 관심을 요한다.

한국의 보호필요아동은 2010년 8,590명, 2015년 4,503명, 2018년 3,91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 이같은 보호필요아동의 양적 감소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18년 보호필요아동 중 가정보호와 시설입소는 각각 1,469명(37.5%), 2,449명(62.5%)인 사실로부터[3]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주된 처우의 장이 시설이라는 점은 보호필요아동의 질적 케어문제가 중요함을 시사케 한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입소아동을 양육하는 곳으로서, 영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다[4]. 이렇듯 아동양육시설은 어디까지나 '시설'로서, 가정에서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개별적 케어를 더욱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의 위상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영유아에 대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보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가 통합보육을 통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경계선 아동에게 부모와 같은 양육자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5].

통합보육이란 장애아동이 또래의 비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6]. 장애통합보육에서의 진정한 통합은 물리적 공간의 통합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적·사회적·환경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7]. 통합보육은 또래들과의 의사소통,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8]. 한편 통합보육은 비장애아동들에게 교육환경 측면의 이질성과 배려심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자료제공으로 창의성 발달의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한다[9].

이러한 통합보육의 가치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이 부족한 통합보육은 교육의 질 저하 또는 방치로 이어지거나[10], 장애아동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보육사의 전문성 부족 관련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11].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은 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이들의 집이자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수행할 때에는 준비되지 않은 통합보육이 이미 원가정에서의 상처를 안고 있는 시설아동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아동양육시설의 존립 명분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듯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통합보육의 특성상, 통합보육의 수행과정에서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육하는 보육사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합보육 관련 정책은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UNESCO(2001)[12]에 의하면, 각 국가들은 특수학교와 센터에서의 분리보육을 수행하거나, 통합학교(integrated schools)에서 특수교실을 운영하기도 하며, 포용적 학교(inclusive schools)에서의 통합보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UNESCO(2017)[13]에 따르면, 2015년 9월, 세계 각국은 UN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안하였다. 그 중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4)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어린이, 장애, 성별에 민감한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하며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장애아통합보육의 성공적 정착 또한 범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시설이자 가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심층적 접근을 요한다. 이는 통합보육 현장의 실태와 현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주요 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

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 지도원, 임상심리 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 전담 요원 등이 있다[4].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아동들과 접촉 빈도가 가장 높고 직접 양육하는 보육사는 자신이 맡는 아동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친밀한 전문가가 되고, 통합보육의 성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사는 아동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가정적 분위기에서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만들어주며 시설보호아동들의 식습관,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지도, 학교 생활지원, 사회성 훈련, 자립지원 등을 도우며 아동발달에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4, 15].

이처럼 시설보호아동들에게 보육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사들은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장애영유아 통합보육 업무의 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통합보육이 가지는 가치와 당위성을 고려하면, 보육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통합보육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원활하게 성장발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합보육과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보육 과정에 관한 최근 연구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16-18]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보육교사의 장애에 대한 지식 결여, 통합보육 실시 시에 장애유아를 돌보는 것 때문에 초래되는 다른 일반 유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의 제한 가능성, 특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 스트레스, 소진, 이직에 대한 연구[19-21]와 보육사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15, 22, 23]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을 수행한 보육사의 다면적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경험한 보육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보육사들이 특수교사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는 공간적·물리적 통합보육 환경에서 겪는 경험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통합보육의 다면성을 파악하여, 통합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보육사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실행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의 통합보육 과정에서 보육사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아동양육시설 통합보육의 다면성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사례연구에 따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는 그 성격과 연구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면 질적 연구의 한 전형이다[24]. 질적 사례 연구는 현상에서의 통찰이나 발견, 혹은 해석에 관심을 가질 때 실시하는 연구 형태이다. 하나의 현상을 파악할 때 다른 현상과의 상호관련성이나 ‘맥락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현상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25].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들과의 연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는 연구이다[26].

본 연구에서의 사례라 함은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의 통합보육 경험이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을 수행한다는 것은 장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내포하면서 비장애 영유아를 함께 보살펴야 하는 난관을 추측케 한다. 그러기에 보육사의 통합보육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개별적이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보육현장에서의 다른 사례와 구분되는 경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년 이상 통합보육 경험이 있는 보육사 5명과 예비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후, 각 아동양육시설 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보육사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각 다른 시설의 통합보육 경험을 가진 보육사 10명을 선정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 2.2 연구 절차

#### 2.2.1 심층면담 및 자료 분석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Table 1.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Age / Gender/ Location	Career period in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children (years)	Career period on inclusive education in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children (years)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d by participants
20s/ female/ N. Gyeonggi	3	3	2
30s/ female/ N. Jeolla	1 or more	1 or more	1
30s/ female/ Seoul	1.6	1.6	5
30s/ female/ Seoul	4.4	4.4	3
30s/ male/ Seoul	3	2	About 10
40s/ female/ N. Gyeonggi	6	5 or more	3
40s/ female/ Seoul	18	8	12
50s/ female/ N. Gyeonggi	2.6	2.6	1
50s/ female/ S. Gyeonggi	1.6	1.6	3
50s/ female/ S. Gyeonggi	12	2	1

이며 선정된 10명의 참여자와 2차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는 주로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며 정보를 수집하여 심층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일주일 후 진행된 2차면담은 1차면담 내용에 대한 생각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면서, 심층적 이해를 위해 풍부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결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면담 전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통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참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담실 또는 조용한 장소에서 평균 1시간 정도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면담을 진행을 하였다. ‘코로나19’관련 근무기관 방침으로 대면이 어려운 참여자들은 수차례의 영상 및 음성통화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이 불명

확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질문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의도를 다시 확인하였다.

면담 시 활용한 주요 질문들은 아동양육시설의 통합보육 과정에서 겪는 경험사례 그리고 그 경험이 심리적, 업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실행하게 되는 통합보육 업무를 어떻게 대처하면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내용을 골자로 각 참여자의 진술 맥락에 따라 구체적 질문을 추가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녹취기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을 끝낸 다음 녹취한 원자료를 당일에 전사하였다.

처음에는 참여자의 진술을 문장 그대로 옮겨 특정 사례들에 대해 각 사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토리텔링형식으로 분석한 후 그 안에서 의미단위를 끌어내고 명명할 때 현상의 다양한 맥락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하였다. 분류된 진술문장들을 진술의 누락이나 의미오류가 없는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을 거치며 의미중심으로 재분류하였고 맥락과 개념화를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며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하여 타당한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로 Bryman & Burgess(1994)의 사례 내, 사례 간 주제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대주제와 하위주제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였다[27].

### 2.2.2 연구의 엄격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이란 연구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28]. 연구자는 면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연구 참여자와의 통화로 참여자의 의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내용 구술 예시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어 사전에 검토하게 하였고 연구결과에 포함된 자료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고 자료와 개념들을 반복해서 비교하였다. 외적 타당성에 대한 노력은 같은 시설에서 통합보육 경험 보육사와의 예비면담 후 최종적으로 각각 다른 시설의 통합보육 경험을 가진 보육사 10명을 선정함으로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면담질문은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과정에 대한 질문들로 일반화에 도움이 되는 질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반적인

연구과정과 원자료 및 분석 자료를 정밀하게 문서화하였고 해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와의 인터뷰 시 비언어적 표현도 민감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동료 박사 대학원생들과의 면담자료와 분석결과의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높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으로 동료 질적 연구자들과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편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 3. 연구 결과

연구 결과, 21개의 의미 있는 개념과 10개의 하위범주,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Table 2. Derived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Concepts

Categories	Subcategories	Concepts
Inclusive education in residential child care facility	Concerns about unintentional inclusive education	Aversion on sudden inclusive education
		Lack of information about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haustion due to admission of disabled children	Caring many children, ev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ernal conflict due to priorit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apting process for inclusive education	Living in guilt every day	Feeling heartbreak and sorry toward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cerns about disadvantage to non-disabled children
	Commitment and efforts	Commitment to inclusive education
		Special efforts for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The need for immediate communication with relevant departments	Support what is needed when needed	A communication window is required for better support
		Support that nobody wants, 3 shifts
	Heavy Task	Urgent need of professional education support to residential child care staffs regarding care for disabled children
		A task that cannot be sustained only by the spirit of sacrifice
Various perspectives on inclusive education	Recognition of the achievements of inclusive education	Efforts for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isabled children
		Rewarding feeling in daily life
	Wall of	Inclusive education is a stress for

negative effects and disabilities	everyone(Negative inter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and its impact). Disability, the wall that residential child care staffs feel
Heartbreaking feeling fo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BIF)	Embarrassment due to the ambiguity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olding hope fo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Ori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Suppor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aim for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Future ori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residential child care facilities

#### 3.1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

보육사들은 비의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통합보육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육사 혼자 많은 수의 아동을 양육하게 되는 경우, 갑자기 장애아동까지 입소하게 되면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게 된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아동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체장애아동의 돌봄으로 인한 체력소진 등을 경험한다. 담당하게 되는 장애아동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장애아동을 맡게 되는지의 예고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매번 장애아동을 우선시하고, 비장애아동에게 양보와 배려를 요구하면서 내적 갈등이 반복되는 정신적인 소진은 불가피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 3.1.1 비의도적 통합보육에 대한 걱정

비장애아동이 주로 입소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사가 장애아동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보육을 수행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 갑작스럽게 맡게 된 통합보육에 대한 거부감 의도와 상관없이 장애아동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지요. 뭔가 혜택도 없고 지원도 없고 그냥 맡아야 되는 상황이니깐요. (참여자 2)

비장애아동만 보다가 장애아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떠넘기니까 제가 이 아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아동들도 같이 봐야하는 상황이니깐. (참여자 7)

나. 양육할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부족

급하게 맡는 경우가 많고 뇌에 장애가 있고 그냥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그렇게 인수인계 받고 바로 케어 들어갔어요. 출근하면 그냥 자동으로 맡게 되요. (참여자 1)

그냥 아이가 들어왔으니 말아라. 저희는 아동카드만 보고 그냥 맡는 거예요. 교대할 때 장애아동이 우리 방에 와있으니까 그런 게 정말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7)

이렇게 보육사들은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미리 정해지지 않은 업무분담으로 인하여 통합보육 수행에 대해 자의가 아닌 비의도적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3.1.2 장애아동 입소에 따른 소진

보육사는 이미 많은 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장애아동까지 더해지게 되어 그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육사 1명 당 담당 아동 수의 현황은 법적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시행령의 보육사 배치기준에 의하면 보육사 1명당 0-2세 아동 2명, 3-6세 아동 5명, 7세 이상 아동 7명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황은 0-2세 평균 4.2명, 3-6세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9]. 특히 보육사는 아동을 한 번 맡게 되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양육하게 된다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장애아동 입소로 인한 어려움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 가. 장애아동까지 떠맡게 됨

장애정도가 24시간 똥오줌 받아내고 미음을 먹여 줘야 되고 그러면 일단은 다 손이 가야되니까 도저히 너무 심할 땐 선생님도 너무 지치니까 비장애아동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참여자 6)

소진은 솔직히 불가항력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아이 키우면서 힘들다고 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스트레스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그게 해소가 안돼요. (참여자 10)

#### 나. 장애아동 우선시에 따른 내적갈등

응급상황에는 비장애아동에게 부탁을 해요. 비장애아동은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 아이들도 보육을 받으려 온 애들이지만 장애아동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6)

장애아동 중심으로 하게 되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머지 아동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내적갈등 같은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진이

너무 가죠. (참여자 8)

보육사들은 장애아동이 우선시되는 상황의 반복으로 인한 내적갈등이 보육사의 소진에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 3.2 통합보육 적응과정

현 통합보육의 상황에서는 장애아동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장애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의 시간과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비장애아동은 늘 양보하고 배려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는 등의 정서적 결핍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보육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반가정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시설 보호아동은 주 양육자인 보육사의 양육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5]. 아동기 발달 특성상 관계가치의 중요함을 고려하면 보육사의 노력은, 아동의 성장·정서적 발달, 인지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노력임을 알 수 있다[30].

### 3.2.1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

보육사는 다수의 아동을 맡아야 함으로 인해 개별아동에게 충분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통합보육으로 인한 내적 갈등으로 매번 양보하고 배려하게 되는 비장애아동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 장애아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아이들마다 챙겨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장애아동은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참 그럴 때는 너무 안타깝죠. 장애아동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도 되게 크면서 죄책감도 들어요. (참여자 7)

장애아동은 아예 격리하듯 하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말보다 물고, 꼬집고 그런 걸 먼저 배워요. 멍 들고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참여자 9)

#### 나. 비장애아동의 피해 우려

신체장애아동에게 제가 계속 매여 있으니까 소외감을 계속 느끼죠. 똑같이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관심에서 항상 배제되는 느낌을 받아서 잘못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참여자 3)

항상 장애아동에게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비

장애아동은) 자기가 아무 잘못을 안했는데 뭘 해야 예뻐 받을까 계속 눈치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참여자 6)

준비되지 않은 통합보육 환경 속에서의 통합보육은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보육사 중 누구도 만족할 수 없어 보인다. 보육사들은 장애아동을 격리하듯이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비장애아동이 의도치 않게 소외되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 3.2.2 보육사의 다짐과 관계성에 대한 노력

아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사가 모든 아이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장애아동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통합보육 상황에서 보육사가 비장애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특별한 노력들이 현재의 통합보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 가. 보육사의 다짐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저는 애들을 오래 불러 거라고 항상 다짐을 했어요. 확실히 오래보면 친근감도 생기고 돌발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이 줄어들어요. (참여자 1)

이런 보육이 독특하잖아요. 24시간 보육이 이뤄진다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길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각오나 다짐이 없었다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 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위한 특별한 노력

자제는 이름을 불러도 눈을 피하고 전혀 딴 행동을 해요. 저의 일방적인 질문이라도 계속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가 너무 좋죠. 저는 상호작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친엄마였어도 그랬을 테니까. (참여자 6)

자기 전까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비장애아동)과 일대일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업무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고안한 방법이 매일 취침 전에 발 마사지 10분 동안 둘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먼저 해주고 그 애가 잠들면 다음 아이 해주고 (참여자 8)

진술문에서 보여지듯이 보육사들은 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매일 긍정적 다짐과 각오로 통합보육에 임하였으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끝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 3.3 행정창구와 즉각적 소통 필요성

보육사들은 통합보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생길길 바라고 있었다. 그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신속한 설치, 보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현장의 요구와 다른 3교대 정책 철폐, 특수교사 파견의 시급함 등으로 보육사와 아동의 처우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거듭 강조하였다.

#### 3.3.1 지원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간단한 지원요구에도 매번 목록부담인 시스템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함께 겪는 보육사와의 직접소통으로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절실히 보였다.

가. 지원요구에도 바뀌지 않는 담당함에 소통창구 필요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요구할 때마다 엄청 오래 걸려요. 설비를 몇 달 뒤에 설치하면 모해요 그 애는 퇴소했는데요. 즉각적인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2)  
장애아동까지 보육해도 아동 수 줄여주는 거 전혀 없고요. 감사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얘기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아동수를 줄여주시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달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있죠. (참여자 7)

#### 나. 보육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 교육지원의 시급함

통합보육이라는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장소만 같이 쓰는 딱 그 정도죠. 통합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교육도 마련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참여자 4)

장애아동에 대해서 저희도 배워야 되는걸 알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요.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통합보육을 해야 한다면 저희도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상호작용이나 장애아동의 돌발에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참여자 7)

#### 다. 누구도 원치 않는 지원, 3교대

3교대도 한 명이 12명을 혼자 보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해서 아동에게 더 혼란만 주고 보육하

기만 더 힘들어요. (참여자 5)

3교대는 얼마가 계속 바뀌는 건데 절대로 애착관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이에겐 여기가 집이잖아요. 사실 2교대하는 지금도 아이들이 헛갈려 해요. 정말 반대해요. (참여자 8)

특히, 3교대 정책은 2018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다.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특별업종 폐지를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의 법적 명시를 통한 사회적 논란 해소 및 일반근로자 휴식권 보장 등이다[31]. 이에 따라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도 주 40시간(근로자 동의 시 주 52시간 가능)을 준수자의 의무화되어 있다[32]. 그러나 연구 참여자 전원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라포 형성의 어려움, 아동들의 혼란 가중 염려, 업무과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보육사들은 일의 보람보다는, 혼자 다수의 아동을 돌보며 느끼는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수시로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 받고 야간 당직을 하게 되며, 업무로 인한 소진보다 급여로 인한 소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 3.3.2 무겁기만 한 업무

시설보호아동들의 원활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보육사의 역할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육사에게 부여하는 역할의 무게는 온전히 보육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 가. 특수교사의 절대적 필요

확실히 통합보육을 혼자하기엔 상상이상으로 많이 힘든 일이고 애들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수교사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해요. (참여자 1)

통합보육을 한다면 그에 맞는 장애전문 특수교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서 보육사 혼자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참여자 3)

#### 나. 희생정신만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업무

월급 받고 일하는 기계라는 느낌이에요. 정책은 항상 권고라서 원장님들은 돈 들면 안 하죠. 시간외 근무수당 15시간도 못 채우게 하는 데가 많아요. 퇴근시간에 카드 찍고 다시 야근 일을 합니다. 지원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못쓰게 해요. 어쨌든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아이한테 오는 소진보다 급여로 오는 소진이 훨씬 더 커요.

(참여자 5)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아이가 난동부리고 물고 이러면 선생님이 피 흘리고 다치면서 감당 못하고 나가시는 분 많아요.(울음)두 달 만에 떠나는 선생님들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던 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정말 보육사를 그냥 직업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참여자 6)

이처럼 통합보육 시에 특수교사지원이 절실하지만 보육사 혼자 몸으로 버티다가 이직을 하게 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정책의 추진이 대부분 권고에 그치고 있어 각 시설장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보육사의 처우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 3.4 통합보육에 대한 보육사의 다양한 관점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통합보육의 과정은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장애아동은 장애로 인한 놀림의 대상, 보육사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한 질투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힘들 수 있다. 한편 비장애아동은 장애아동을 모방하다가 퇴행을 경험하기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육사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긴다고 여기는 등의 정서적 결핍과 소외감 때문에 부정적 발달을 보일 수 있다. 보육사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통합보육 시 막막함을 느낀다.

보육사들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똑같은 아동이라는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으로[33] 대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보고, 아동을 최대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고 수시로 이해와 배려를 가르치고 있었다.

경계선 아동은 통합보육 상황에서 장애아동만큼이나 추가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경계선 아동의 IQ는 70-85사이로, 지적 장애 기준인 IQ 70은 넘지만 비장애 아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34].

#### 3.4.1 통합보육의 성과 인식

자연스럽게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배려하고 함께 화합하는 상황의 도출에는 보육사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장애아동과 긍정적 관계로 가기 위한 인내(보육사, 비장애아동)

선생님 지도보다 또래아이가 주는 피드백이 장애아동에게 훨씬 영향력이 커서 더 도움이 되고 불만이 있을 때도 그 친구는 약하니까 이해하고 참았다고 해요. (참여자 3)



장애정도에 따라 똑같이 대해주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보고 배우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하면은 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참여자 5)

나.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보람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랑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배려하는 걸 보면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1)

비장애아동들도 처음에는 싫어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람되고 좋았어요. (참여자 7)

이렇게 보육사들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성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3.4.2 부정적 영향과 장애의 벽

보육사는 장애아동마다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그에 맞는 교수법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가. 통합보육은 모두에게 스트레스(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그 영향)

(비장애아동이)착한아이증후군에 걸릴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계속 눈치보고 부모하고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저와 함께 장애아동을 수발하면서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3)

장애아동이랑 비장애아동은 같이 있으면 안돼요. 비장애아동이 너무 힘들어요. 안전을 위해서도 다른 아이들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다리를 못 쓰는 장애아동은 몸을 막 밟히고 저는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스트레스예요. (참여자 5)

나. 보육사가 느끼는 장애라는 벽

보통 시설 애들이 다 느리긴 하지만 유독 느린 아동이 있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지적장애가 나왔고 도저히 여기 여건이 안 되서 장애인거주시설로 보냈어요. (참여자 2)

말을 못하니까 장애아동은 화도 많고 답답해하는 것도 많아요. 장애가 있다는 것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달래서 되는 일도 아니고. (참여자 10)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 현재의 통합보육 환경에서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4.3 경계선 아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경계선 아동은 통합보육 상황에서 장애아동만큼이나 추가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그 상태의 모호함으로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교육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35]

가. 아이 상태의 모호함으로 인한 당혹감

경계선 아동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장애가 아니라 지원은 없고 보육은 장애아동보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기능 훈련 잘 받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해요. 하루빨리 교육해주고 싶지만 그 모호함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요. (참여자 3)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가 있어요. 지금 대학에 다니는데 장애등급을 받질 못했어요. 그냥 일반 아이로 시설에서 나가면 자립이 불가능해요. 이 아이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지원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참여자 8)

나. 경계선 아동에 대한 놓고 싶지 않은 희망의 끈

요새 학대나 방치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소아동 거의 대부분이 다 경계선 아동들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학습지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훨씬 더 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경계선아동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쉬울 때가 많죠. (참여자 1)

경계선아동은 아픔과 원인도 다들 비슷한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사회생활이잖아요. 조기에 4시간 정도씩이라도 따로 케어해주면 어릴 때라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0)

이처럼 보육사들은 경계선 아동이 적절한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 3.4.4 통합보육의 지향점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통합보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보육사들은 통합보육의 긍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보육을 반대하는 보육사들은 통합보육이 모두에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장애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과 장애아동이 통합보육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적 돌봄을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비장애아동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좌절을 겪을 수 있다.

비장애아동은 통합보육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원만한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통합보육을 반대하는 보육사들의 경험에 의한 근거를 보면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가. 특수교사 지원 및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보육 지향 장애정도가 심하면 일반양육시설에서는 힘들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해요. 특수교사나 장애아동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엄청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그냥 장애정도에 따라 안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참여자 8)

장애정도가 중요하죠. 신체장애로 걸음을 잘 못 걷는 아이는 분리를 해야 되요. 다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항상 업어주거나 해야 되서 어쩔 수 없이 아동들의 행동반경이 좁아지죠. 장애아동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특수교사 과건의 전제 하에,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와 경계선아동을 포함한 통합보육시행에 긍정적이었다. 특수교사 지원은 시설에서 각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교육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33]. 반면에 통합보육은 모두에게 스트레스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나.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 미래지향방향  
가장 우선적으로는 보육사들에게 통합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그에 따른 교육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통합보육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시설이라는 장소에 맞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2)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요즘 많이 입소하는 경계선아동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꼭 그에 맞는 교육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할 땐 옆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서 잠시 있다가 돌아와도 확실히 좋아져요. 아동들마다의 정도에 맞는 교육지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 준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위의 진술문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들에게 집과 같은 이 장소에 맞는 통합보육지원이 절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육사들은 경계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의 부재를 가장 안타까워했다.

#### 4. 결론: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사의 입장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과정’에 대한 상황적 요소를 통해 통합보육의 다면성을 들여다보고자 접근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입장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업무과중과 소진을 호소하는 보육사,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케어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정도가 모호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경계선아동, 그리고 보육사 대비 너무 많은 아동 수와 장애아동의 케어로 인해 충분한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자라고 있는 비장애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의 통합보육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아동양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걱정과 염려, 죄책감을 표현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양육시설 통합보육의 다면성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합보육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각 시설과 보육사 현황,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과 구성 비율 등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을 제공한다는 통합보육의 의미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양육시설이라는 특수한 곳에서의 통합보육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의 수와 장애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시설뿐 아니라 모든 통합보육현장에는 보편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더불어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안(IEP)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유아가 적절한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의 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8]. 특히 자폐성향이 강한 아동일 경우, 통합보육의 장점인 사회적 향상의 효과에서 극히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며, 타 장애에 비해 자폐아동의 사회적 증진에 대한 통합의 효과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육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36]. 물론 그 과정에서는 장애로 인한 특수성에만 매이지 않으며 모든 인간이 독특하다는 독특성의 보편화에 근거한 보육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면성에 따른 통합보육의 핵심은 특수교사와

재활치료 인력의 배치이다. 특수교사의 과건을 통해 시설의 장애아동과 경계선아동이 현재의 통합보육환경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인지·재활·작업치료, 특성화교육과 자립교육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영유아·아동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위험이 큰 영유아들에 대한 초기의 중재는 발달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장애 정도를 감소시키며 2차적 장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37].

셋째, 기존 보육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통합보육사를 양성할 것이 필요하다. 좋은 환경에 행·재정적 지원이 갖춰져도 주체가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성공적 통합보육을 기대하기 어렵다[38]. 이와 같은 맥락에 따르면 통합보육의 성공요인으로 보육사의 전문성과 역량이나[39] 보육사들의 통합보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전문 통합보육사의 양성과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40].

넷째, 보육사의 처우개선이이다. 보육사들은 업무과중에 비해 낮은 급여,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소진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사 전원은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주 52시간 3교대 근무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3교대 근무정책이 시설아동의 주 양육자라는 보육사의 역할과 현장이 가진 특수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하루에 양육자가 3번 바뀌는 상황이 영유아·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3교대 전환보다는 시설에서 보육사 대 아동 수의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보육 과정에서는 많은 경우의 수와 예외 상황들의 변수가 발생되므로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육사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에 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합보육의 다면성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보육사의 보육활동 운영에 탄력성을 갖게 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시설아동들에게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통합보육 다면성에 따른 실질적 지원은 업무량 감소로 이어져 이직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시설보호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33].

보육사의 급여 문제로 인한 소진은 관련 인건비를 국비로 전환하거나, 일부 지자체 비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41]. 무엇보다 인건비는 시설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여, 보육사가 급여 관련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양육시설의 통합보육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아동양육시설에 보호필요 영유아·아동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을 마련하여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관리감독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41]. 특히 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가 시급하므로, 복지부의 아동정책과 장애인정책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42].

무엇보다 장애아동에게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들이 그 책임을 공유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교환을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40].

요컨대 정부는 지원체계의 정비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이 그 특수성과 통합보육의 다면성에 따른 내부 환경을 갖추어, 시설보호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의 통합보육 경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보육사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통합보육의 방해요인들은 현장의 요구에 충실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는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의 처우와 급여 문제,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양육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하는데 일조하리라 본다.

## REFERENCES

- [1] A. W. Seo. & J. A. Noh. (2015). The effect of naturalistic language intervention on the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s of young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7(4), 147-165.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Report on the status of children being protected*. <http://www.index.go.kr/main.do>.
- [3] Forster Home Protection Status Report. (2018).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ncrc.or.kr>.
- [4] National Center of Laws and Laws (2020). *2020 Child Welfare Act*. National Center of Laws and Laws. <http://www.law.go.kr>.
- [5] S. Y. Lee. (2019).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f child care workers on their*

- child-rearing attitudes*. Doctoral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6] S. H. Kim. & J. H. Kim. & J. S. Kim. (2014). *Introduction to child care & education*. Gyeong-gido: Community.
- [7] E. M. Park. S. H. Ji. & I. S. Park. (2018). *Enhancing the management of inclusive child care centers in seoul: integr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y*. Seoul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8] S. J. Seo & M. A. Do. (2018). A Study on Effect of Game Activity through Peer Intervention on Social Behavior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 in Integrated Child Care Setting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2(2), 93-115.
- [9] J. H. Kang. (2012).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director and teachers to ward the inclusive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at somang childcare cent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6(2), 79-98.
- [10] Y. S. Park. G. S. Jeung. & J. A. Noh. (2019). Perception of teachers at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about status and support needs of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1(4), 1-26.
- [11] K. E. Kim, & D. K. Lee. (2017). Happiness and difficulties of teachers experienced inclusive child care for disabled children.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549-575.
- [12] UNESCO (2001).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children's needs in Inclusive Classrooms*. Paris, UNESCO.
- [13] UNESCO (2017). *A Guide for ensuring inclusion and equity in education*. Paris: UNESCO.
- [14] K. H. Jang. (2008). *A study on the support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mainly about the adolescents who live in independent living facilities in korea*.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15] E. S. Shin.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hood rearing experience, professionalism and work environment of child care giver on her attitude towards caring for children in institution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Taegu.
- [16] Y. K. Cho. & C. M. Lee. (2003). The Attitudes Survey of Child-Care Directors for Expanding the Inclusive Child-Care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And Education*, 33, 209-226.
- [17] Buell, M. J. & McCormick, M. G. (1999). Inclusion in a child care context: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family child care provider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4), 217-224.
- [18] Debord, K. & Sawyers, J. (1996). The effects of training on the quality of family child care for those associated with and not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child care organization. *Child and Youth Care Forum*, 25, 7-15.
- [19] H. A. Kang. C. R. Nho. E. M. Park. & H. R. Shin. (2008). The relationships among work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s of child welfare employe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3), 107-27.
- [20] N. H. Choi. (201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Local Child Care Center Work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3), 917-930.
- [21] H. M. Yoon. & P. S. Noh. (2013). Relationship of Work Stress, Career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ducare-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3, 157-184.
- [22] S. I. Lee. & H. A. Kang.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for child care workers and their child-rearing attitudes: Mediating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8, 21-50.
- [23] S. M. Kim. (2004). *Care-givers'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in children's center and their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focused on the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living in children's center in incheon*.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 [24] J. H. Lee. (2000). *Case study method* Daejeon: Daekyung..
- [25] I. S. Kim. (2016). *Qualitative Methods and Analysis in Social Welfare Research*. Gyeonggi-do: Zipmundang..
- [26] M. Y. Ko. (2013). *Qualitative case study*. Seoul: cheongmok a publishing house.
- [27] Bryman, A., & Burgess. R. G(Eds) (1994). *Analyzing Qualitative Data*, London: Routledge.
- [28] Guba, E. G. & Lincoln, Y. S. (1985).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Major paradigms and perspectives*, 105-117.
- [29] J. W. Choi. & Y. K. Cho. (2019). Individualized Care Support Plans for Vulnerable Children (V): Current Statu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Services and Plans for Future Service Provis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0] H. Y. Yoon. (2010). *A study of attachment stability of infants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31] Y. K. Kim. (2018). Shift-work patterns for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6, 5-23.
- [32] D. H. Lee. Y. H. Kim. & S. H. Jung. (2019).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social welfare living facility working type*. On-Nara BPS System. <http://www.prism.go.kr>

- [33] Y. M. Won, & J. H. Jeon. (2018). Study on childcare teachers' changes of disability awareness and childcare experience through the training for disability awaren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8(1), 169-192.
- [34] K. M. Kang. (2008). Actual conditions of child welfare centers according to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roles of christian counselling.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6(1), 209-234.
- [35] O. R. Kang. (2016). Education of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asks and resolution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1), 361-378.
- [36] Y. C. Cho & M. J. Chung, (2012). The study of the inclus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3(1), 1-13.
- [37] H. R. Lee, S. Y. Park, J. H. Bea, & M. S. Song. (2020).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disabled and their beliefs in inclusive education on concerns about inclusive education.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2), 325-346.
- [38] Y. J. Ryu, & J. A. Noh. (2016).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on inclusive educational training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8(2), 229-250.
- [39] M. J. Kim. (2019).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enhancement program for care workers in child care facilit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Coaching*, 12(3), 71-93.
- [40] S. H. Lee, & E. H. Park. (2006). *Special child education*. Seoul: Hakjisa.
- [41] J. L. Lee. (2020). A plan for child care support for child care facilities. *Parenting Policy Forum*, 63, 24-30.
- [42] E. J. Kim. (2014).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facility child protection. *DongGwang*, 109, 57-72.

윤 성 희(Sung-hee Yun)

[장학선]



- 2017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장애아동, 장애인 스포츠
- E-Mail : wiky5522@naver.com